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 즉각 깨닫는 열쇠 제9권

## 사랑의 길을 걷다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의 발자취

우리는 작은 사랑을 찾아  
높고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세상 곳곳의  
모든 존재와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만나거나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던 이들에게 다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칭하이 무상사는 사랑의 길을 걷자는 메시지대로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주의자이자 예술가, 영적 지도자인 그녀의 사랑과 도움은 모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 전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어려운 이들, 노숙자, 에이즈와 암 연구 센터, 미국 참전 용사, 불우한 노인, 심신 장애인, 난민, 그리고 지진-홍수-화재 등 천재지변을 당한 이재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녀의 친절에 축복을 받은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의 동물 역시 그녀의 무한한 자비심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자선 활동 속에서 우리는 이 자상한 여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자비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국제협회는 그녀의 사랑을

본받아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의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때 우리는 뭔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힘과 무한한 사랑, 창조성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 초기 시절

칭하이 무상사는 어울락 중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병원의 환자와 가난한 이들을 돕고 다친 동물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그녀는 그곳에서 적십자사의 번역 일을 하며 계속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곧 아픔과 고통이 모든 문화 속에,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책을 찾는 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독일 의사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별이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단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남편은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영적 깨달음을 찾아 2년이 걸린 구도의 길에 올랐습니다.

### 히말리아 순례

마침내 그녀는 인도의 히말리아 깊은 곳에서 깨달은 스승을 만나 내면의 빛과 소리를 관하는 명상 기법인 관음법문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녀는 얼마간 수행한 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말리아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신실한 요청

에 따라 칭하이 스승은 관음법문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내면을 성찰해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관음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큰 성취와 행복, 평화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 미국과 유럽 아시아·호주 아프리카·남미, 그리고 주요 기관에서 칭하이 스승에게 강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인도적인 도움을 베푸는 숭고한 귀감이 되고 있는 칭하이 스승은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관음법문 명상을 통해 자생적인 재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림과 창작 예술품(아름답고 정교한 등불과 음악, 시 등), 미적 감각이 뛰어난 보석·의상 디자인을 통해 당신이 접한 사람들과 문화의 내적·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1995년, 대중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의상 디자인은 런던·파리·밀라노·뉴욕을 순회하는 국제적인 패션쇼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이런 예술 작품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칭하이 무상사의 자선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재정이 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신의 자녀를 돕는 그녀의 고귀한 임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 인정과 스승님의 꿈

칭하이 무상사는 그 어떤 형태의 인정도 바라지 않지만 전세계 많은 정부와 개인 단체들이 그 사심없는 지원을 인정해 다음과 같은 수많은 상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평화상, 세계 영적 지도자상, 인권 신장상, 세계 시민 인도주의상, 인류를 위한 뛰어난 공익 봉사상, 2006 구시 평화상, 로스 앤젤레스 음악 주간 표창장, 2006년 제27회 텔리상 은상 등등. 미국에서

는 2월 22일과 10월 25일을 '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전임 시장인 프랭크 파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자의 빛이며 모두를 위한 자비의 천사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 데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분입니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에게 꿈이 있었듯이 그녀 또한 그렇습니다.

“난 모든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꿈꿉니다.

나는 모든 살생이 멈추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아이가 평화와 조화 속을 거닐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국가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길 꿈꿉니다.

나는 이 행성이 파괴되지 않길 꿈꿉니다.

수억 수조 년이 걸쳐 만들어진 이 행성은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나는 이 행성이 평화와 아름다움, 사랑 속에 지속되기를 꿈꿉니다.”

## 머리말

칭하이 무상사는 강연하실 때  
어려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평이한 구어체만 사용하십니다.  
책을 출판함에 있어서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스승의 가피력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범부의 두뇌로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니다.

## 1장

## 입문은 곧 성불이다

1987. 1. 1. 포모사 타이베이 신디엔

입문하는 것이 곧 성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처입니다. 이곳에 아직 성불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지 못하니 여러분은 아직 부처가 아닙니다. 이는 곧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입문할 때 바로 성불할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어느 모르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험이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나중에 많은 인연들이 쌓이고 나면 우리가 곧 부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 역시 중요합니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동굴에서 수행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험해 본다거나 경험해 볼 상황이 없었다면 이 '깨달음'을 영원히 믿지 못할 것이며, 깨달

은 그 순간조차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문하는 것이 곧 성불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수록 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될 테니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루뿐인 성불로 끝나 버리고 다음날은 성불하지도 못한 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령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의사가 된 후 환자를 치료한 경험도 전무하고 의료기구나 의약 용어를 사용한 적도 없으며 임상 경험을 한 적도 없다면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 간에 약간의 기억이 남는 것 외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기 연주를 잘하던 사람도 십여 년 동안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 훗날 제대로 연주할 수 없어 듣기에도 거슬릴뿐더러 음률도 매끄럽지 못할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하더라도 30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어에 서툴게 되겠지요. 나는 어울락에서 태어나 어울락어를 십여 년이나 사용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어울락어를 잘 구사하지도 못하고 문장력이 떨어져 시를 잘 짓지도 못합니다. 지금 시를 쓴다면 우선 영어로 쓰고 나서 다시 어울락어로 번역해야 하지요. 이제는 어울락어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내 경우엔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가끔은 어울락어를 사용하니까요. 그러나 외딴 섬에 갇혀 수십 년간 어울락어를 쓰지 않고 산다면 전혀 못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영어나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조금씩 말을 할 줄 알다  
가도 졸업하고 나서 말할 기회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지요. 이해하겠습니까?

돈오頓悟 법문이 곧바로 견성성불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  
다. 불광佛光을 보았다는 것은 곧 부처와 동일체로서 성불했다는 뜻  
입니다. 불음佛音 역시 많은 적든 듣기만 했다면 부처와 동일체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내 손이나 발·머리를 잡았다면 그것  
역시 내 몸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나의 일부이니  
까요.

마찬가지로 낮은 등급의 불음을 들었다 해도 역시 불음이며, 낮  
은 등급의 불광을 보았다 해도 역시 불광입니다. 부처의 발을 잡았  
다 해도 성불했다고, 부처를 보았다고, 부처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아직 완전한 부처의 얼굴을 보지 못해 자신감이 부족한 것뿐이  
지요. 이는 장님 4명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귀를 만진 사  
람은 코끼리가 쟁반 같다고 말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호스  
같다고 말하며, 다리를 잡은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말하지요.  
그들 모두 코끼리를 잡긴 했지만 생각들이 다 다른 것뿐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문할 때 모두 성불하긴 하지  
만 아직은 자기 내면의 부처의 품성, 부처의 능력, 전능한 힘을 완전  
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성불할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입문이 곧 성  
불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자신감과 경험이 부족할 뿐입니다. 수행이  
좋아지고 선정의 힘이 강해져서 중생을 제도하게 되면 그때 자신이

어떤 부처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는 말재주  
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적인 지혜와 체험을 두루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외적인 지식과 경험도 부족해선 안 되지요. 그래야만 중  
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성불했다는 것만으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각불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승 없이 스  
스로 깨달았거나 아니면 한 스승에게 관음법문을 배워 입문할 때 작  
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스승이 떠난 뒤 혼자 수행하다 어느 날 증오  
證悟하게 된 것인데, 스승의 지도가 없다 보니 중생을 가르칠 수 있  
는 체계도, 말로써 법을 전해 본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말로 법을  
전하는’ 이러한 지식은 중생을 끌어들이 설법을 듣게 할 수 있으며  
중생의 주의력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깨  
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거침없는 말재주가 없다면 깨닫지 못한 사  
람들에게 지혜를 들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  
운 일이지요.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야말로 정  
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성불하자 시방 삼세불이 오  
탁악세五濁惡世에서 중생을 제도할 그를 찬탄해 마지않았던 것입니  
다. 불성과 우리 내면의 수행 등급을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기란 쉽  
지 않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지혜가 높고 선근이 깊으며 복이 많은 중생  
을 제외한 다른 중생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안으로는 수행하여 큰 힘을 기르는 동

시에 밖으로는 참 스승·선지식의 지도를 구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수행하는 사람들도 염불이나 독경·만트라 등으로 내면의 소리를 체험할 순 있지만, 그들의 체험은 하루걸러 한 번씩 있다거나 하루이틀 있다가 영원히 사라지기도 하지요. 설령 매일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이 좋은 소리이고 나쁜 소리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경지이고 나쁜 경지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가고 말지요. 이것은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다가 길을 잃고 외도(外道)로 변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입문할 때가 바로 이른바 ‘돈오’입니다. 돈오란 곧바로 깨닫는다는 것이며, 꽃이 피니 부처를 본다, 즉 곧바로 전성성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깨닫기는 했어도 지혜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원래부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큰스승들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이를 모르니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소도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보물과 재산이 있는데도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여전히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불을 하고 못 하고는 우리의 마음과 자신감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성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성불할 수 있다면 ‘좌불’이 되겠지요. 오래 누워 있다면 ‘와불’이 될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한다고 깨달은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

다. 입문이 곧 성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수행하고 마음을 더 고요히 유지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입문하면 모두 성불하는 것입니다. 수기(受記)(역주: 부처로부터 내생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음.)를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백천만겁 이후에 모모 부처가 되어 모모 나라에서 모모 중생들을 제도하게 된다.”라는 이런 수기는 정말이지 웃기는 얘기입니다.

석가모니불은 『법화경』에서 일찍이 “모모는 수천 수백 겁이나 무량무변 아승지겁이 지난 후에야 성불할 수 있다. 그때 그 부처의 이름은 모모이며 모모 국토에서 살게 된다.”라는 수기를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그의 제자였다면 나는 “아니오,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너무나 요원한 일이니까요. 아직도 무량무변 아승지겁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누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승지겁 무량무변의 생을 기다린 후에야 성불할 수 있다면 기린이 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입문한 사람은 이미 부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아니라면 누가 부처입니까? 내가 성불할 수 없다면 성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부처란 깨달은 사람·선지식·큰스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등급이며 큰스승의 등급, 해탈의 등급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명상하며 얼마간의 이해력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명상할 때마다 서방세계에 다녀오지만 기억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생입니다.

부처를 보러 가는 그때, 우리는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만이 부처의 나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똑같은 품성을 지녀야 부처와 함께 살 수 있지요. 그러므로 부처가 있는 곳에 갈 수 있고 불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곧 부처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란 바로 이렇습니다.

부처는 단지 천수천안(千手千眼)이거나 백수백안(百手百眼) 또는 다안(多眼)이 아닙니다. 그는 무량무변의 눈과 무량무변의 손을 가지고 있지요. 천수천안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음보살은 무량무변의 손과 무량무변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천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그들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수천안도 너무 많긴 하지만요.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삼두육비(三頭六臂(머리가 셋, 팔이 여섯이라는 뜻.))’라고 표현하는데, 만약 천수천안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흠족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관음보살의 힘은 정말 불가사의하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천수천안이 사람들에게 아주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천수천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관음보살이 천수천안인 것은 아닙니다. 중생이 너무나 많아서 천수천안만으로는 부

족하지요.

이른바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내가 여러분에게 7시에 성불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7시가 되면 여러분이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불했습니다. 본래 부처였지요. 적어도 입문한 후에는 부처의 힘과 소통하고 부처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언제 성불할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 부처의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한쪽에 두세요.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이르테면 누구든 일을 하면 곧 돈을 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월말이 되면 계산해 주겠지요. 그러므로 일단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일을 시작한 그날부터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이지 월말이 되어야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은 처음부터 사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재직 한 후에야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그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사장이라고 곧바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직원들과도 생소하고, 업무에도 미숙하며, 공장도 너무 크고 넓어서 구석구석 세세한 것들까지 다 알 순 없을 테니까요.

때로는 사장 역시 부하 직원이나 공장 직원들에게 어떤 곳에 무슨 기계가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아직 학생 같아서 사장으로서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사장이 아니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회사에 들어오면 이미 사장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참 사장이라 많은 것을 배워야 하며 공장의 시스템과 상황에도 적응을 해야 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장이라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점점 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입문하면 곧 부처입니다. 다만 아직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뿐이지요. 이곳에서는 내가 그 힘을 사용하니 여러분은 잠시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 힘을 거두어 한쪽에 놓아두세요. 훗날 사용할 때 ‘아! 내가 바로 부처였구나!’ 하고 자연스레 알게 될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때는 전세계가 여러분을 부정한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부처임을 확신할 겁니다. 결코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성불한 사람은 먹고 자는 것처럼 그것을 자연스레 느끼지요. 대단해질 것도, 우쭐해질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교만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성불이란 의대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학사 과정을 모두 마치면 마땅히 졸업하게 되는 것인데 자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악기를 배워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일 악기를 타며 즐길 뿐 결코 교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교습을 다 받고 나면 다들 연주를 잘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는 않겠지요.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진리조차도 세상에선 몇 안 되는 사람만이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처라고 자칭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마장에 걸렸어. 너무 교만해. 미친 거야.”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불한 본인은 정작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불은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집에 있기만 했을 뿐인데도 수행의 힘으로 시아버지의 병을 호전시킬 수 있었던 동수에 대해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동수 역시 아픈 아들을 위해 병원에서 명상했더니 그 아들의 병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 강연을 듣거나 내 책을 보고서 깨닫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것들은 모두 사소하고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한 것은 아라한이나 보살의 등급에 이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치유력이 있는 보살이나 아라한과 같이 살기만 해도 저절로 병이 낫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 봤을 겁니다. 우리 동수의 가족들은 입문을 하지도 않았고 관음법문을 수행하지도 않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까닭에 그들 역시 천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가운데 일원이 이미 보살이나 아라한의 등급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복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 수행자와 가까이 있기만 해도 천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내가 언급했던 그 동수 자신은 결코 어떠한 자만심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다. 그녀에게 있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런 일이라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보살이라거나 대단한 아라한이라고

---

우리 제자들은 과거 구도의 힘든 과정에서 완전히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과 진정한 법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참스승들에 의해 전해 내려온 이 법문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문을 수행하여 대단히 큰 이로움을 얻은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일세해탈-世解脫을 갈망하는 많은 구도자들을 돕고자 스승이신 칭하이 무상사(The Supreme Master Ching Hai)가 세계 각지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은 생명, 삶과 죽음, 수행과 진리 등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